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한국남녀골프, 지구촌 그린 제패

세계투어 상금왕

JGTO 김경태
JLPGA 안선주
LPGA 최나연
亞투어 노승열

한국남녀골프가 권위있는 세계골프투어에서 한 시즌에 4명의 상금왕을 동시에 배출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1998년 박세리(33)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과 2000년 최경주(40)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시발점으로 세계 무대로 뻗어나갔던 한국골프는 올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LPGA 투어, 아시아투어에서 상금왕을 거머쥐었다.

화려했던 국내 무대를 뒤로 하고 2008년 일본무대로 진출했던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은 5일 끝난 JGTO 시즌 마지막대회 JT컵에서 공동 5위로 마무리하면서 시즌 상금 1위에 올랐다.

선수층이 두텁기로 유명한 JGTO에서 외국인 선수가 상금왕에 오른 것은 1987년 일본계 미국인 데이비드 이시이 이후 23년 만이다.

이에 앞서 안선주(23)는 JLPGA 투어에 진출한 첫해에 상금왕과 신인왕, 최저 타수상, 다승왕을 휩쓸면서 일본골프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미 미국여자골프 무대에서 최강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여자군단도 시즌 마지막대회인 LPGA 투어 챔피언십이 채 끝나기도 전인 5일 최나연(23·SK텔레콤)이 상금왕을 확정했다.

작년 상금왕 신지애(22·미래에셋)는 이번 대회 4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지만 최나연이 신지애의 바통을 이어받음으로써 2년 연속 한국선수가 상금왕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최나연은 최저타수(베어트로피) 부문에서 크리스티 커(미국)에 간발의 차로 앞서 있어 6일 새벽 4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2관왕 이상의 성적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 남자골프의 차세대 간판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의 활약도 눈부셨다. 일찌감치 유럽과 아시아 무대로 눈을 돌린 노승열은 지난 3월 메이뱅크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해 종횡무진 세계무대를 누빈 끝에 역대 최연소 아시아투어 상금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아마추어인 국가대표 김민휘(18·신성고), 박일환(18·속초고), 김현수(18·예문여고), 한정은(17·제주중문상고)도 지난달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4개의 금메들을 독식하면서 한국골프의 미래를 밝힐 재목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김경태〉

〈안선주〉

〈최나연〉

〈노승열〉

5일 오후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쏘나타 K-리그 2010 챔피언결정 2차전 FC서울-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FC서울 아디가 후반 헤딩 역전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FC 서울 10년만에 K-리그 챔프

아디, 헤딩 결승골… 제주에 2-1 역전승

FC서울이 제주 유나이티드를 꺾고 10년만에 프로축구 K-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서울은 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쏘나타 K-리그 2010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전반 25분 산토스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전반 28분 정조국의 페널티킥 동점골에 이어 후반 27분 아디의 헤딩 결승골로 제주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원정 1차전에서도 두 골을 먼저 내준 뒤 후반 추가시간 김치우의 동점골로 극적인 2-2 무승부를 거뒀던 서울은 이로써 1, 2차전 합계 4-3으로 앞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이 K-리그 정상에 오른 것은 2004년 안양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처음이고 전신 안양LG 시절인 2000년 이후 10년 만이다.

반면 제주는 유공 시절인 1989년 이후 21년 만에 정상 도전을 노렸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아쉽게 눈물을 흘렸다.

서울은 전반 10분 제주 골문을 열었지만 석연찮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땅을 쳤다.

김치우가 아크 정면에서 왼발로 강하게 찬 공을 제주 골키퍼 김호준이 잡다 놓치자 데얀이 달려들어 오른발로 밀어넣었지만 부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어 올렸다.

결국 먼저 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제주였다. 전반 25분 서울 수비수 현영민의 백패스 때 골키퍼 김용대가 걷어낸 공이 멀리 가지 못하고 미드필드에 있던 배기종에게 걸렸고, 배기종이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내준 공을 산토스가 왼발 터닝슛을 때려 선제골을 뽑았다.

하지만 서울은 3분 뒤 정조국의 페널티킥으로 균형을 되찾았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마철준과 공을 다투던 정조국이 넘어지자 최광보 주심이 휘슬을 불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정조국은 차분하게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후반 들어 서울은 11분 만에 정조국을 빼고 최현태를 투입했고 25분에는 김치우를 불러들이고 이승렬을 투입했다.

그리고 후반 27분 결승골이 터졌다. 제파로프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아디가 골문 정면에서 헤딩으로 꽂아 팽팽했던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짐 퓨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짐 퓨릭(40·미국)이 선정됐다.

PGA 투어는 5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 회원들의 투표 결과 퓨릭이 2010년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주는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던 퓨릭은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처음 선정되며 최고의 한 해를 맞았다.

퓨릭은 올해 21개 대회에 출전해 세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상금 480만 달러로 2위, 페덱스컵 포인트 1위, 평균 타수 5위 등 고른 성적을 냈다. PGA 올해의 선수상은 1948년 제정됐으며 우승 및 톱10 입상 횟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준다. 또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은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연합뉴스

우즈 사흘내내 황제샷

셰브론월드챌린지 선두
13개월만에 우승 눈앞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시즌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우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의 셔우드 골프장(파72·7027야드)에서 열린 셰브론 월드챌린지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이날까지 17언더파 199타를 기록한 우즈는 2위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을 4타 차로 따돌려 마지막 4라운드를 남기고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이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비정규대회라 투어 우승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정상급 선수 18명만 출전해 총상금 500만 달러를 놓고 겨룰 만큼 수준이 높아 우즈로서는 지난해 11월 호주 마스터스 우승 이후 1년 1개월 만에 정상에 서는 느낌이 남다를 터다.

또 세계 랭킹 산정에는 포함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 1위 복귀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연합뉴스

'셔틀콕' 이용대-정재성 중국오픈 우승

한국 남자 셔틀콕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정재성(국군체육부대)이 2010 중국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남자 복식에서 우승했다.

이용대-정재성은 5일 중국 상하이 푸둥 얀센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복식 결승에서 장난-차이뱌오(중국)를 경기 시작 40분 만에 세트스코어 2-0으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사냥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던 이용대-정재성은 곧바로 치러진 2010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선수권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한 이후 중국 오픈까지 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세트 초반 8-8까지 접전을 펼쳤던 이용대-정재성은 내리 6점을 따내며 승기를 잡았고, 2세트에서는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9점차 승리를 챙기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